

제3과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의미

I. 개념 정리

1.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2. 죄란 무엇인가?

1) 성경에서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다.

2)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이다.

3)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임을 알 수 있다.

3. “거듭났다” (요3:3, 고후5:17)

주인이 바뀌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다. 내가 아닌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요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후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 “구원을 받았다” (골1:13-14, 행16:31, 롬1:5)

1)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있는 죄(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골1:13-14, 행16:31)

골1:13~14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행16:33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조되리라)

2) 또한 구원은 나 자신의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 (롬1:5, 행19:9)

롬1: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행19: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II.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가치

1.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마 13:44-46)

마 13:44~46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재물이 주는 보장과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다. (마 19:20-21, 24)

마19장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결론

1. 거듭나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구원 받은 성도들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